

# 바리스타·외식인력... 불교 복지관이 '앞장'

## 정부,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국고 80억 원을 추가 투입해 7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2.5%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2014년까지 2.7% 상향시키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복지시설도 장애인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 사업체와 연계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전문기술을 익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외식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마중물'에서는 외식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전문훈련을 지도하고 있다(사진 왼쪽).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산업 현장체험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사진 오른쪽)

제공하고 있다. 또한 능력과 욕구를 고려한 적합직종을 개발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외식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마중물'이 인기다. '마중물'은 외식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과정으로, 디시, 프랜, 홈세팅 및 직장예절 등 전문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수강생 가운데 70~80%가 취업하고 있다. 외부 장애인복지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이전에 위치한 760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 12건의 구인 업체를 개발해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복지관은 그린나래 카페를 운영, 지역 카페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들이 음료 제조, 서비스 예절 등의 훈련을 받은 뒤 실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맞춤 훈련과 커피머신활용법 및 음료제조법 훈련을 통해 카페 업종직무의 체험 및 직업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관은 이러한 훈련을 거친 학생들이 사업체의 근무현장에서 업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훈련기간 동안 직업재활전문가가 직무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완전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6월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개원하고 장애인 취업 지원에 나섰다. 특히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제과제빵 기술을 훈련받아 능숙한 자격을 취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직업훈련을 통해 제과제빵 기술을 익히고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장애인들의 임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산업 현장체험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사진 오른쪽)

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단순조립이나 포장 등을 통해 생활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1년부터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복지관은 2011년부터 전문청소직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개설된 프로그램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2008년 '연화 직업재활원'을 설립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자폐장애인)들이 화폐기술 및 압화(꽃누름) 기술을 배워 전국 꽃매달 서비스 및 압화 생활용품 등을 보급·판매하고 있다. '연화 직업재활원'은 2009년 2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 장애인들이 고용을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는 국내 230개 우수 중소기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 광산구장애인복지관, 경주시장애인복지관, 금강장애인복지센터,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시흥장애인보호작업장, 아나울장애인보호작업장,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 다수의 장애인복지관들이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복지 단신

### 동국대 일산병원, '무료진료' 실시

송산실버문화센터 어르신 100여명 지원



송산실버문화센터 운영위원장 일면 스님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연우회 봉사단 직원들 양·한방 무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불암사에서 운영하는 송산실버문화센터(관장 최재혁)는 11월 2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병원장 채서레이)과 함께 양·한방 무료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행사는 송산실버문화센터 운영위원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연우회 봉사단 직원 33명이 함께했다.

이날 연우회 봉사단은 접수 및 체중·혈압·혈당체크를 시작으로 건강 상담, 물리치료, 침술치료, 약 처방 등의 질 높은 맞춤형 양·한방 서비스를 100명의 어르신들에

제공했다. 이번 무료 양·한방 진료를 찾은 어르신은 "나이가 많아서 아프지 않은 곳이 없고 상담도 받고 싶었는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가 무료 진료도 해주고 처방도 해줘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연우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송산실버문화센터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진료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 중립복지관, 연탄·김장 나눔 행사

우리는행과 생필품·후원금 전달



중립종합사회복지관과 우리는행 본점 영업부 임직원들은 취약계층 10가정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3000장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중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11월 2일 우리는행(본점 영업부)과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10가정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3000장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는 '나눔의 온기로 만드는 따뜻한 겨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는행 본점 영업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각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 나눔을 실천했다. 우리는행 2003년 동기회 회원은

후원금 300만원을 모금해 복지관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해, 중구에 위치한 경로당 2곳과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우리는행은 지난 3월부터 중립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청소년 역량강화 PACE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업 후원과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 "잃어버린 나 찾으니 기뻐요"

과천복지관, 중년여성 자존감 확립 프로그램 진행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갱년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를 진행하고 있다.

"매일매일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기분 좋은 일이나 우울한 일이 있었는지 이 친구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관장 이상복)에서는 15여명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원예치료프로그램을 받았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55세부터 65세까지 과천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갱년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생각연습하기, 생각의 걸림돌 제거하기 등 집단상담프로그램 4회기와 생화꽃꽂이, 나만의 액자 만들기 등 원예치료프로그램 4회기, 새싹 비빔밥을 만들어 지역 내 독거어르신을 방문하여 전달하는 등 13회기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있다.

은빛여성의 healing-up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는 2012년 대학생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상명대학교 봉사동아리 튼튼의 대안으로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대학생의 참여유도를 통해 사회 복지분야의 참여기회 확대하고자 2009년부터 대학생프로그램공모전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나은 기자

### 생명나눔, 11월 지원 환자 선정

이광훈 씨 신경섬유종증 투병으로 후원 절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1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로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는 이광훈(27) 씨를 선정했다.

이광훈 씨는 신경섬유종증으로 투병하던 아버지에 이어 서서히 운동신경이 둔해지며 증세가 나타났다. 2차례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호흡곤란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기관지절개술로 판을 통해 영양공급을 하고 있다. 시신경이 마비돼 망막 이식수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월 70만 원씩 들지만 아픈 자녀를 돌보아야 해서 전혀 일을 할 수 없고 기



신경섬유종증을 앓고있는 이광훈(27) 씨

초생활수급자인 이 군의 어머니로서는 감당하기 벅겁다.

생명나눔은 "아픈 가운데서도 눈을 삼켜가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 교직원 양성 전문교육

# 제 85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승,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12월 5일까지

◆개강일시 : 2013년 12월 6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산소제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통) 8cm]

